

범죄의 두려움과 주거 단지의 요새화*

김 성 언**

국 | 문 | 요 | 약

이 글은 한국의 범죄피해조사 자료에 의거하여 폐쇄적이고 출입 검열이 이루어지는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 (gated community)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주거 환경의 요새화와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검증하려는 것이다.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주거 환경의 요새화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지를 규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환경이 이웃 관계와 사회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들은 선행 연구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보안의 요새화가 범죄의 두려움과 무관하지 않음을 잘 보여주었다. 범죄의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방어수단을 모색하게 하는데, 주거 환경의 요새화는 하나의 선택지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거 환경의 요새화가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대신 주거 환경의 요새화가 이웃과의 유대 강화나 사회통합 혹은 사적 자치와 연결되지 않는 한 범죄의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나 사회통합을 통한 집합적인 보안 추구는 시장주의적인 보안 추구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범죄에 대한 두려움,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 주거 환경의 요새화, 사회통합, 집합주의적인 보안 추구, 시장주의적인 보안 추구

* 이 논문은 2011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부교수, 사회학박사.

I. 문제제기

지금까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의 연구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원인 혹은 두려움으로 인해 야기되는 삶의 부정적인 측면들의 규명에 그 초점이 맞춰져 왔고,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행하는 긍정적 기능이나 두려움을 낮추기 위한 방안들의 탐색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CPTED)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효과를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두려움의 완화와 관련된 경험적 증거들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혼합적이다(Lab, 2010: 제4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범죄의 감소는 물론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의심 없이 수용되고 있는 듯하다.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지역사회가 점점 도시화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은 감소되고 범죄의 두려움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해왔다(Wilson-Doenges, 2000). 도시 계획자와 주택 개발업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역전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전략들을 활용해왔다. 개발업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전략들 중의 하나가 아파트 단지와 같은 ‘출입이 규제되고 보안이 지향되는 주거 단지’의 건설이다. ‘보안 지향형 주택 단지’(gated community)란 울타리, 벽, 경비실 혹은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출입문과 같은 몇몇 물리적 방벽을 통해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주거 지역을 말한다. 많은 학자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의 성장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는데, 범죄로부터의 안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해소는 그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Blakely and Synder, 1995; Foldvary, 1994; Giroir, 2006; Le Goix, 2006). 하지만 새로운 주거 공동체의 건설이 공동체 의식과 유대를 창출하고 범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더욱이 보안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주거 단지의 출현이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사회적경제적 분절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Blakely and Snyder, 1997: vii).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8.4%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27.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아파트 거주 비율의 추이를 보면, 2000년 47.8%, 2005년 52.7%, 2010년 58.4%로 증가해왔고,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같은 기간 37.2%, 32.2%, 27.9%로 각각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거를 위해 아파트를 택하고 있고 그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는 것일까? 이를 ‘범죄 및 두려움’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서 ‘아파트’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들의 삶에 있어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 공간으로서의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재테크 수단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집합적인 주거 공간, 새로운 주거 문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의 삶으로부터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한다. 아파트에는 경비실이 있으며 최근 새롭게 건축되는 대형 아파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다양한 장치와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한마디로 ‘아파트’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편리한 삶의 공간으로서, 안전한 삶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아파트 생활이 주는 편리와 안전은 그 주거 공간의 환경적 특성으로부터 유추되는 요소이다. 최근에 건축되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물리적 전경은 서구적인 의미의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의 속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울타리, CCTV, 출입 제한과 경비원 등은 대개의 아파트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는 보안 관련 특성들이다. 실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범죄 발생 현황은 아파트와 같은 주거 공동체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준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2009년도 ‘민생치안 범죄¹⁾’의 발생 장소를 분석해 보면, 공동주택의 비율은 7.5%이고 단독주택은 11.0%로 나타나고 있어,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에서의 범죄 발생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경향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절도와 강도 역시 공동주택(각각 8.7%, 7.4%)보다 단독주택(각각 14.1%, 13.2%)에서 발생한 비율이 더 높다.

1) 민생치안 범죄의 유형에는 절도, 장물, 손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포함되며, 2009년의 경우 총 598,099건이 발생했다(대검찰청, 2010: 278-279).

그런데 거주하는 주택 유형에 따른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그 주택 유형별 실제 범죄 발생의 위험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2008년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두렵다’는 응답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7.3%, 아파트 거주자 8.0%였으며, ‘약간 두렵다’는 비율은 단독주택 거주자가 30.0%, 아파트 거주자 33.8%의 분포를 보였다. 즉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비율은 단독주택 거주자(37.3%)보다 아파트 거주자(41.8%)가 조금 더 높았다. 이 결과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범죄피해-두려움의 역설’이라는 고전적 주제를 떠올리며, 그 비일관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거주자들이 단독주택 거주자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이 주거 공간으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까? 아파트와 같이 낮은 사람의 출입이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는 주거 공간은 기대와 달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나마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과거보다 두려움의 정도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보안 테크놀로지와 민간 경비 등 ‘시장’에 의존하여 안전을 추구하는 ‘요새화된’ 주거 환경이 범죄의 두려움과 맺는 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애쓰는 현대 도시의 물리적·건축학적 공간과 주거 문화의 특성들에 주목하고 경험적인 수준에서 그것이 개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물리적 환경 변화만으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아파트와 같은 새로운 ‘보안 공간’이 갖는 특성과 그 기능에 기대어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의 등장 배경과 그것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구의 논쟁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해 요새화된 주거 환경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범죄가 새로운 위협의 한 요소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 진정 어떠한 종류의 실천이 요구되는지를 탐색해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연구 문제

1.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대응: 출입 규제·보안 지향적 주거 공동체의 등장

최근 주거 양식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현상은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gated community)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블레이크리와 스나이더(Blakely and Snyder, 1995: 2)는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를 ‘통상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그 둘레가 벽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이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보안 공동체’로 정의한다. 보안과 보호를 그 주요 특징으로 하는 이러한 주거 공동체들은 세계 도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²⁾

많은 학자들이 보안이 강조되는 새로운 주거 공동체의 등장에 주목하고 그 급격한 성장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 은퇴 후 정착하는 주거 공동체와 여가용 주택 단지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선호 주택의 형태 변화, 동질성을 중요시 하는 부유한 중산층의 엘리트주의, 범죄의 두려움, 자산으로서의 주택과 부동산 가치의 보전, 사생활 보호 등은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의 등장을 설명하는 주요 관점들이다(Blakely and Snyder, 1995; Blandy et al., 2006; Foldvary, 1994; Giroir, 2006; Le Goix, 2006).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 제도의 능력에 관한 우려의 증가도 보안추구적인 주거 단지의 유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McKenzie, 1994). 이러한 주거 공동체들은 사적인 도시 자치(private urban governance)를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과 그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편의 시설 등에 대해 더 많은 통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Webster, 2003). 보안지향형 주거 단지에서 전개되는 자치적 통치 형태들은 공공 체계보다 서비스 질, 공급의 확실성, 화폐 가치 등에 있어 더 큰 선택권을 제공한다

2) 그 주요 형태로는 남아프리카의 보안이 강화된 주거지(security villages)와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네(neighbourhood enclosures)(Jürgens and Landman, 2006), 미국의 공동주택 단지(common interest developments)(McKenzie, 2006), 탈공산주의 이후의 중국의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gated developments)(Giroir, 2006; Webster et al., 2006), 중동의 사설 경비에 의해 보안이 조달되는 동네(private guarded neighbourhood)(Glasze, 2006),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목격되는 초국적 엘리트 집단을 위한 폐쇄적인 고급 주택 단지(Webster et al., 2002) 등 다양하다.

는 점에서 우월한 것으로 비춰진다.

이처럼 동질성, 사회적 지위, 안전 보장을 추구하는 중간계급 거주자들의 배제적 집단 거주지에 대한 선호, 방어 공간(Newman, 1972)에 대한 심리학적 유혹은 객관적인 범죄율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주관적인 두려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의 급속한 성장을 목격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국가인 미국의 경우, 방어 공간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거주지 요새화 경향의 심화 현상은 특히 도시 범죄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과 전국적인 히스테리의 증가에 따라 더욱 심해졌다고 한다(Flusty, 1997; Judd, 1995). 블레이클리리와 스나이더(1997)는 미국의 보안 지향적 주거 공동체 주민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70%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이러한 주택 단지로 이사 가는 것을 결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급격한 경제적·사회적 변동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취약성을 느끼며 자신의 거주지와 이웃의 안전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은 실제적인 범죄 추이나 발생 장소와는 무관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 그리고 신체적·경제적 안전 보장을 위해 물리적 환경을 통제하려는 방법들의 증가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고 진단한다. 더불어 그들은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와 출입이 통제되는 주거 공동체의 등장을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요새 감수성’(fortress mentality)의 극적인 표현으로 규정한다(Blakely and Synder, 1997: 1-2). 호주의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 현황을 연구한 케나(Kenna, 2010: 436) 역시 사람들이 부유한 동네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로써 주거 환경의 안전을 꼽고 있다. 이 연구는 주민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살고 있던 동네가 범죄나 소란 등으로 인해 점차 황폐화되어 가는 문제가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기는 데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폐쇄적·보안추구적인 주거 지역의 실질적인 범죄율은 결코 낮지 않음이 지적되어야만 한다(Kenna, 2010: 439). 물리적 장벽으로 둘러싸인(출입문과 같은 출입 제한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주택 단지와 범죄율의 관계에 대한 결과들은 분명하지 않다. 비록 울타리와 같은 방벽들은 걸인들이 주택 단지 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과연 범죄자들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현재 논쟁 중이다(Lab, 2010). 몇몇 연구들은 주민들이 이러한 주택 단지의 방벽들을 통해 더 많은 안도감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지만(Atlas and LeBlanc, 1994; Blakely and Snyder, 1997; Fowler and Mangione, 1986), 다른 견해도 있어(Dupuis and Thorns, 2008),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와 두려움의 관계가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보안 지향적 주택 단지가 범죄의 두려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 주택 단지의 물리적 환경이 범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공동 대응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뉴먼과 몇몇 학자들은 벽이나 울타리는 가시적이고 확인 가능한 책임의 경계, 즉 영역성(territoriality)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Brown and Altman, 1981; Newman, 1972; Taylor and Brower, 198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합법적 이용자들의 능력과 희망,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일 때 조치를 취하도록 자극하는, 한 지역에 대한 소유 의식을 말한다(Lab, 2010: 85). 마치 야생 동물들이 외부의 침입자에 대해 목숨 걸고 자신의 구역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개개인의 주거 영역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할 것이며, 자기 영역 수호의 개별적 관심은 지역 수준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에서는 영역성과 공동성 혹은 동질성에 대한 거주민들의 반응이 확대되는 덕분에 공동체 의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Lagrange and Danielson, 1997).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경계가 존재하고 접근이 통제될 때, 주민들 간의 상호 신뢰나 연대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블레이크리와 스나이더(1997)는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에서 발견되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사실상 일차적인 사회적 가치는 아니며, 폐쇄적 주거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수준과 서로간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것일 뿐, 지역 공동체와 실질적인 유대를 갖지 않는 피상적인 것이라고 규정한다. 더욱이 이들은 “이웃이 보안을 위해 기술적 장비와 고용 경비원에 의존할 때, 그들의 유대는 강화되기보다 약화되고 이웃의 보안에 대한 개인들의 책임은 효력이 없게 된다.”라고 평가하고 있다(Blakely and Synder, 1997: 163). 더욱이 그러한 관점은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가 사회 분할의 새로운 생성 기제로 작동한다는 우려와도 연결된다

(Davis, 1990; Fainstein, 1994; Goobler, 2002; Low, 2003).

이렇듯 보안지향형 주거 단지, 공동체 의식, 범죄의 두려움 간의 논의 지형은 비교적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폐쇄적·보안 지향적 주거 단지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주인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매개로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적 방벽이나 기술적인 보안 장비 그 자체가 사람들의 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환경이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보안지향형 주택단지와 범죄 두려움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 문제의 설정

폐쇄적·보안 지향적 주거 단지의 성장은 범죄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무질서나 사회통제의 부재에 대한 반응으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약화된 사회통제를 극복하고 상실된 사회통합을 재건함으로써 두려움을 낮추는 데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공동체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는 경험적 논증을 거쳐 확인되어야 한다.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사회통합 모델에 의하면, 그 두려움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웃이 주민들의 공동 가치를 실현시키고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유지(이는 이웃 간의 상호 신뢰와 유대에 의존)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잘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역으로 이 모델은 높은 사회적 응집성과 집합효율성(상호 신뢰 및 지역의 무질서를 유발하는 다양한 행동과 상태에 대한 감독, 공중질서에 대한 자발적 개입)이 두려움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가정한다(Bursik and Gramsick, 1993; Sampson et al., 1997; Sampson and Raudenbush, 1999). 특히 집합효율성 이론은 주민들 간의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는 활발한 교제와 지역적 관심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외부로부터 제기되는 범죄 위험 및 이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웃 주민들과의 교제와 참여를 통해 이웃과 사회적으로 통합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Rountree and Land, 1996).

그러나 뉴먼(1972)의 기대처럼 보안지향적인 주거 공동체가 영역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파트와 같은 폐쇄적·보안지향적 주택의 선택은 범죄로부터의 안전이라는 욕구 이외에 다른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이웃과 사회적으로 연계되고자 하는 욕구 그 자체가 즉각적인 중요성을 지니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새로운 주거 환경이 주민들 사이에 사회 연결망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Kubrin and Weitzer, 2003: 386; Lab, 2010: 122). 보안지향형 주거 공동체가 갖는 외부 위험에 대한 감시 능력은 영역성에 기초한 주민들의 자발적 감시 활동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감시카메라와 같은 보안 장비나 주민들이 고용한 경비원을 통해 달성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의 보안 조달 방식은 ‘시장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시장주의’ 보안 모델은 잠금장치, 침입경보기, CCTV와 같은 보안 상품의 구매나 경비 회사와의 계약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주택 공급업자들은 일상화되어 버린 범죄 위험(Garland, 2001)에 대한 소비자들의 존재론적 불안에 호소함으로써 보안 시장과 주택 시장의 통합에 성공한다. 높은 담벼락과 울타리, 왕래자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는 ‘출입문’과 같은 건축학적 설계에다 첨단 보안 장비들이 덧붙여짐으로써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는 비로소 현대판 ‘요새’가 된다. 때문에 주민이 아닌 외부업자에 의해 거주 지역의 영토적 경계가 만들어진 경우, 단지 내 보안 활동이 외부인(경비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동체 의식이 발현되고 영역성이 강화될 수 있는지가 논쟁점으로 부상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 즉 (1)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와 같은 요새화된 주거 환경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2) 그와 같은 환경은 영역성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지, (3) 두려움에 대한 보안지향형 주거 단지의 영향은 직접적인지 아니면 사회통합 요인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발현되는 것인지 등을 검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과연 전형적인 의미의 ‘보

안지향형 주택 단지'의 속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아파트의 경우, 서구적인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의 물리적 특성들은 실제적 이라기보다 '상징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것의 폐쇄성은 물리적인 방벽이라는 건축학적 특성보다 사회계층이나 주거 양식과 같은 사회적·문화적 요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차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사적인 공간이며 외부인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상호작용하는 공공장소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되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들은 외부와의 물리적 폐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험 요인의 감시를 위한 각종 첨단 장비를 단지 곳곳에 구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들도 점차적으로 서구적인 의미의 보안지향형 주거 공동체의 속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우리나라에서의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란 보안 관련 테크놀로지나 민간경비에 의존하여 주거 환경의 '요새화'를 추구하는 주거 공동체라고 풀이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와 두려움의 관계에 대한 애초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 환경의 시장 의존적 보안지향성, 즉 '요새화 경향'이 강화될수록 범죄에 대한 거주민들의 두려움은 완화되는가? 그와 같은 요새지향성은 거주민들의 사회통합을 강화하는가? 본문에서 필자는 회귀분석을 통해, 주거 환경의 요새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리고 그러한 지향성이 범죄의 두려움 및 이웃의 사회통합과 맺는 관계를 순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위의 쟁점들에 답하고 그 결과의 의미들을 논의할 것이다.

III. 자료와 주요 변인의 측정

1. 자료

이 연구는 200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VI)」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이 조사의 모집단은 모든 가구 및 14세

이상의 가구원이며, 표본수는 4,710가구 10,671명이다. 표본 추출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와 아파트 조사구의 가구단위를 기초로 확률 비례계통추출법(지역층화확률표집)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김은경 외, 2009: 제4장).

2. 주요 변인의 측정

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통상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구체적인 범죄 상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반적으로 느끼는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은 자신의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죄피해의 우려를 나타내는 정서적 감정으로서의 두려움과는 구분된다고 한다(Ferraro and LaGrange, 1987).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일반적인 두려움’(인지적 두려움)과 ‘구체적인 범죄피해의 두려움’(감정적 두려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의 유형은 절도와 강도와 같은 재산범죄 피해, 폭행,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 스토킹 등의 폭력범죄 피해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두려움을 각각 측정하였다.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두려움’을 구성하는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 계수(α)는 .879로 비교적 높았고, 재산범죄 피해의 두려움(α =.889), 폭력범죄 피해의 두려움(α =.858)의 측정문항 또한 모두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각각의 두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나. 주거 환경의 요새화

이 글의 주된 초점은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와 같이 요새화된 주거 환경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새화된 주거 환경’은 매우 질적인 개념이어서, 그런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양적인 개념으로 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

는 ‘주거 환경의 요새화’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주거 환경의 요새화’란 범죄나 위협으로부터 주거 환경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안 테크놀로지나 민간경비에 의존하는 정도를 말한다. 주택이나 주거 단지에서 잠금장치, 침입경보 시스템, 출입카드, CCTV와 같은 보안 테크놀로지나 자체 혹은 계약 경비 등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주거 환경의 요새화도 강화된다고 풀이할 수 있다.

주거 환경의 요새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별 가구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개별적 요새화’이고 다른 하나는 주거 공동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요새화’이다. 예를 들어 특수 잠금장치나 방범창, 방범용 비디오 오픈, 도난경보 시스템 등은 개별 가구마다 설치되는 특징이 있어, 이 항목들의 설치 여부를 합산하여 ‘개별적 요새화’라는 복합지수를 구성하였다($\alpha=.537$). 반면 CCTV, 출입카드, 경비원은 공동 주거 지역에 대한 낯선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감시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집합적 요새화’라는 복합지수를 만들었다($\alpha=.710$).

다. 사회통합

공동체의 특징 중의 하나는 ‘우리’와 ‘그들’에 대한 구분일 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유대가 깊고 잘 통합된 사람들은 누가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누가 낯선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주거 공동체의 지리적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가 동류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영역성(혹은 주인 의식)과 관련된 문제이다.

응집적인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구성원들이 이웃의 불행을 도외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응집적인 이웃에 대한 감정적 애착은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통합적이고 응집적인 지역일수록 구성원들 사이에는 강한 인적 연결망이 형성될 것이다. 이웃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사회적 지지와 통합의 정도를 반영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통제와 참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주민들 간의 상호 신뢰와 사회적 연대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을 영역성과 이웃의 동질성, 그리고 집합효율성의

두 가지 측면인 이웃과의 교제와 참여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파악하고자 한다. ‘영역성’은 자신의 주거 환경에 대한 주인 의식을 나타내며 지역의 경계와 이방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하였다($\alpha=.652$). ‘이웃의 동질성’은 이웃에 대한 소속감과 동류의식을 나타내는 두 가지 문항으로 구성된다($\alpha=.735$). 집합효율성의 ‘교제’는 동네 주민들과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네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alpha=.919$). 마지막으로 집합효율성에서 말하는 자발적 ‘참여’는 지역의 범죄나 비행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개입 정도를 나타내는 네 가지 문항을 가지고 측정하였다($\alpha=.789$).

IV. 분석 및 논의

일차적으로 이 글은 요새와 같은 주거 공간의 구축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인 수준에서 논증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주거 환경의 요새화는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거 또는 완화되는 데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는 것이 이 글의 첫 번째 관심사이다. 보안 지향형 주택 단지와 같은 요새화된 주거 환경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체의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기여하는지를 검증하는 일은 이 글의 두 번째 과제가 된다. 이 두 작업을 통해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의 요새화된 주거 환경과 공동체의 통합,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를 논의할 것이다. 본격적인 연구 문제의 검증에 앞서, 주거 환경의 요새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주거 환경의 요새화에 대한 영향 요인의 탐색

요새화된 주거 환경에서의 보안 추구의 특징은 시장 의존성이 높다는 점이다. 시장 의존성은 시장 구매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따라서 주거 환경의 요새화는 사회 계층(소득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된다.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요새화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택 소비자의 욕구와 무관하게 다양한 보안 상품이 주택 공급업자에 의해 필수 항목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집합적 요새화는 그 개념 구성상 공동주택

에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사회계층과 주택 유형이 주거 환경의 요새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계층은 가구소득으로 측정하였으며,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을 참조 항목으로 하여 연립·다세대 주택, 소형 아파트(60㎡ 미만), 중형 아파트(60㎡ ~ 85㎡ 미만), 대형 아파트(85㎡ 이상), 오피스텔, 기타 주택을 각각 가변인(dummy variable)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리고 성별(남성)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삼아 회귀모형에 포함시켰다. 종속변인은 개별적 요새화 및 집합적 요새화의 정도이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개별적 요새화 모형이나 집합적 요새화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했으며, 전자는 개별적 요새화에 대한 분산의 30.4%, 후자는 집합적 요새화에 대한 분산의 68.4%를 설명하고 있었다. 개별적 요새화 모형의 경우, 가구소득과 주택 유형, 연령이 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적 요새화 모형에서는 가구소득, 주택 유형이 이를 설명하는 데 적합했다.

예측된 것처럼 주거 환경의 요새화는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단위는 물론 주거 구역 단위에서의 요새화 수준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새화된 주거 환경은 단독주택보다는 기타 주택이나 오피스텔, 그리고 기타 주택이나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에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면적도 요새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개별적 요새화의 정도는 소형 아파트가 가장 낮고 그 다음이 대형 아파트이며, 중형 아파트가 가장 높았으며, 집합적 요새화의 정도는 아파트 면적이 증가할수록 강화되고 있었다. 즉 아파트 면적이 넓을수록 주거 환경의 개별적·집합적 요새화 경향성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은 개별적인 요새화와 부(-)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 수준에서 보안 상품에 의존하는 정도는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젊은 사람들은 안전한 주거 공간의 확보를 위해 보안 상품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이에 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집합적 요새화에 미치는 연령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밖에 두 가지 회귀모형에는 성별도 포함되었지만, 개별적 요새화나 집합적 요새화 그 어느 것을 설명하는 데도

적합하지 않았다.

〈표 1〉 주거 환경의 요새화에 대한 회귀분석표

변인	개별적 요새화		집합적 요새화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성(남성)	-0.008	-.004	-0.015	-.007
연령	-0.040***	-.055	0.000	.000
가구소득	0.134***	.152	0.064***	.081
연립·다세대 주택	0.673***	.193	0.118***	.038
소형 아파트	1.074***	.303	1.263***	.399
중형 아파트	1.218***	.401	1.739***	.640
대형 아파트	1.228***	.356	1.985***	.643
오피스텔	0.594***	.052	1.078***	.105
기타	0.417***	.043	0.301***	.035
(상수)	0.577***		-0.127***	
사례수	10,671		10,671	
F값	516.445***		2567.469***	
R ²	.304		.684	

* : p < .05, ** : p < .01, *** : p < .001

이처럼 주거 환경의 요새화는 소득수준과 선호하는 주거 형태 혹은 주거 문화에 의해 유의미하게 영향 받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베타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개별적 요새화와 집합적 요새화 모두 가구소득보다 주거 형태로서의 아파트가 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 비춰봤을 때,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주거 환경의 요새화 정도를 결정하기보다 미리 요새화된 주택을 선택한다는 표현이 보다 적절한 것이다. 즉 사람들은 건축업자들이 잘 꾸며놓은 ‘보호고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아파트의 면적이 넓을수록 개별적 혹은 집합적 요새화의 정도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주하는 아파트의 면적이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 환경의 요새화는 사회계층에 의해 차등화 된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나. 주거 환경의 요새화와 범죄의 두려움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보자. 이곳에서의 관심은 요새화된 주거 환경이 범죄의 두려움을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영향은 직접적인 것인지, 아니면 보안이 강화된 물리적 환경 덕분에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거주민들이 범죄와 같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데서 비롯되는 간접적인 효과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에 주거 환경의 요새화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범죄의 두려움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함으로써 두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특히 사회통합 관련 변인(영역성, 이웃 동질성, 교제, 참여)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도 주거 환경의 요새화가 직접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했다. 범죄의 두려움은 일반적 수준에서의 인지적 평가(일반적인 두려움)와 구체적인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감정적 평가(재산범죄 피해의 두려움, 폭력범죄 피해의 두려움)로 구분하였다. 한편, 전통적으로 성별과 연령은 범죄의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고, 주거 환경의 요새화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세 가지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삼아 회귀모형에 포함시켰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는데, 두려움에 관한 세 가지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했다. 하지만 두려움 유형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조금씩 달랐다. 특히 사회통합 관련 변인들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 가지 회귀모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그 결과는 개별적 요새화와 집합적 요새화 모두 범죄의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개별적인 요새화는 일반적인 범죄의 두려움, 재산범죄 피해의 두려움, 폭력범죄 피해의 두려움과 각각 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잠금장치, 방범창, 비디오폰, 도난정보 시스템과 같은 보안 테크놀로지의 안전망 속에 안주할수록 범죄의 두려움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주택의 요새화를 강화한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별적 요새화는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서 강화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연립다세대 주택보다 아파트의 요새화 정도가 더 높다는 <표 1>의 분석 결과를 눈여겨봐야 한다. 만약 개별적 요새화가 개인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라면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에서의 요새화 수준은 큰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단독주택 거주자라도 보안 시장을 이용하면 개별적 요새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파트와 같은 요새화된 주거 환경을 선호한다는 해석도 그럴 듯해 보인다. 만약 이러한 추론이 맞는다면 요새화의 정도가 높은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들의 두려움 수준이 소형 아파트나 다른 주거 유형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 3>을 보면, 그와 같은 가설은 타당해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요새화의 정도와 두려움 수준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 2〉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회귀분석표

변인	일반적인 범죄 두려움		재산범죄 피해 두려움		폭력범죄 피해 두려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성(남성)	-2.912***	-.458	-1.443***	-.208	-1.570***	-.291
연령	-0.246***	-.123	-0.138***	-.063	-0.248***	-.146
가구소득	0.171***	.072	0.188***	.072	0.157***	.077
영역성	-0.053**	-.030	0.011	.006	0.002	.001
이웃 동질성	-0.084***	-.040	-0.127***	-.056	-0.071***	-.040
집합효율성_교제	0.009	.012	-0.015	-.020	-0.015	-.025
집합효율성_참여	-0.011	-.011	0.004	.003	0.008	.008
개별적 요새화	0.222***	.082	0.286***	.096	0.217***	.094
집합적 요새화	-0.135***	-.045	-0.225***	-.068	-0.167***	-.065
(상수)	10,509***		11,304***		8,327***	
사례수	10,671		10,671		10,671	
F값	377.898***		86,121***		175,444***	
R ²	.242		.068		.129	

* : p < .05, ** : p < .01, *** : p < .001

더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응답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선택한 시점보다 뒤에 측정되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만약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사람들이 요새화된 주택을 선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선택 이후 그들의 두려움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 환경의 요새화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의 두려움 수준이 단독주택 거주자들(이들의 요새화 수준은 아파트 주민보다 낮다)보다도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오히려 이러한 결과는 개별 가구 수준에서의 요새화가 범죄의 두려움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거나, 한 번 높게 형성된 두려움은 요새화된 환경 속에 안주하더라도 크게 완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표 3〉 주택 유형별 범죄의 두려움 수준의 비교

구분	사례수	일반적 두려움	폭력피해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단독 주택	4,348	7.92 (3.21)	6.75 (2.73)	10.16 (3.64)
연립·다세대 주택	1,378	8.35 (3.32)	7.17 (2.89)	10.33 (3.58)
소형 아파트	1,330	8.33 (3.18)	7.01 (2.61)	10.27 (3.35)
중형 아파트	1,931	8.45 (3.02)	7.20 (2.60)	10.49 (3.27)
대형 아파트	1,415	8.21 (3.02)	6.86 (2.56)	10.05 (3.26)
오피스텔	113	7.52 (3.45)	7.24 (2.77)	10.67 (3.16)
기타	156	8.60 (3.38)	7.08 (2.55)	10.22 (3.20)
계	10,671	8.17 (3.17)	6.94 (2.70)	10.25 (3.47)
F		9.931 ***	9.094 ***	3.301 **

** : $p < .01$, *** : $p < .001$

개별적 요새화가 범죄의 두려움과 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집합적 요새화가 두려움과 부(-)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보안이 강화된 주택 속에 안주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의 두려움을 강화하지만, 주거 공간의 요새화가 주택 단지나 이웃과 같이 집단적인 수준에서 전개될 때는 두려움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집합적 요새화가 강화된 주거 환경은 외부에 대해 폐쇄적인, 서구적 의미의 안전지향형 주택 단지의 물리적 속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방인의 감시와 출입 통제를 겨냥하는 CCTV, 출입카드, 경비원과 같은 보안의 요소들은 거주민의 범죄에 대한 인지적인 두려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피해와 관련한 감정적 수준의 두려움을 낮추는 데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별적 요새화나 집합적 요새화가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통합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요새화된 주거 환경이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요인들 역시 범죄의 두려움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웃 동질성이 높아질수록 일반적인 범죄의 두려움, 재산범죄 피해의 두려움, 폭력 범죄 피해의 두려움은 낮아지고 있다. 영역성은 일반적인 범죄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웃과의 활발한 교제는 폭력범죄 피해의 두려움을 낮추는 데 긍정적이다. 이상의 결과들은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통합이 집합적 수준에서 요새화된 주거 환경의 조성과는 독립적으로 거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 통제변인으로 상정한 성별(남성), 연령, 가구소득도 세 가지 유형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데 적합했다. 베타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가지 회귀모형에서 성별은 범죄의 두려움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었다. 남성일수록 범죄의 두려움 수준이 낮다는 분석 결과는 기존의 취약성 가설과 부합한다. 하지만 연령과 가구소득은 예외였다. 취약성 가설은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대응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낄 것으로 가정한다(Ferraro and LaGrange, 1992; Fisher and Sloan, 2003; Hughes, Marshall, and Sherill, 2003).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도 높기 때문에 두려움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Covington and Taylor, 1991; Pantazis, 2000; Skogan and Maxfield, 1981). 그렇지만 결과는 가설의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가구소득을 범죄의 예방이나 피해 회복의 측면이 아닌 범죄 발생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취약성 가설을 지지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다. 요새화된 주거 환경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앞의 분석에서는 주거 환경의 요새화가 사회통합의 요인과는 독립적으로 범죄의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요새화된 주거 환경은 지역사회의 통합과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개별적 요새화가 오히려 범죄의 두려움을 조장하고, 집합적 요새화가 두려움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를 그 요새화

가 낳은 주민들 간의 관계 혹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볼 여지는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요소들(영역성, 이웃 동질성, 교제, 참여)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주거 환경의 요새화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사회통합의 요인들은 성, 연령, 소득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삼아 분석 모형에 포함시켰다.

<표 4>는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영역성, 이웃 동질성, 교제, 참여의 네 가지 회귀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했다. 그 결과를 보면, 주거 환경의 요새화는 이웃의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적 요새화는 거주민들의 영역성과 이웃 동질성의 의식을 약화시키고, 이웃 간의 교제와 지역 문제への 참여에도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적 요새화 또한 지역 주민들의 영역성과 교제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집합적 요새화는 이웃 간 동질성을 강화하는 데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합적 요새화는 이웃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수준’을 설명하는 데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환경의 요새화가 지역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새화된 주거 환경이 지역사회 통합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결과는 개별적인 요새화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요새화된 보호고치 속으로 몸을 숨기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와 유대를 단절하고 약화시킴으로써 그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집합적 요새화가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이라는 결과 역시 사회통합의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웃 동질성은 세 가지 유형의 두려움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으로서 그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집합적 요새화가 두려움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효과는 부분적으로 집합적 요새화가 이웃 동질성과 맺는 정(+)의 관계를 매개로 해서 나타나는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표 4〉 주거 환경의 요새화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대한 회귀분석표

변인	영역성		이웃 동질성		집합효율성_교제		집합효율성_참여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성(남성)	-0.154***	-.042	-0.067*	-.022	-0.647***	-.071	0.814***	.139
연령	0.214***	.188	0.243***	.253	1.085***	.377	0.279***	.152
가구소득	0.043**	.032	0.044***	.039	0.142***	.041	0.157***	.071
개별적 요새화	-0.197***	-.127	-0.170***	-.130	-0.398***	-.102	-0.165***	-.066
집합적 요새화	-0.116***	-.067	0.142***	.097	-0.229***	-.052	0.024	.009
(상수)	5.989***		5.203***		8.137***		11.175***	
사례수	10,671		10,671		10,671		10,671	
F값	171.852***		181.438***		461.991***		98.799***	
R ²	.075		.078		.178		.044	

* : p < .05, ** : p < .01, *** : p < .001

이밖에 통제변인인 성, 연령, 가구소득도 사회통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영역성과 이웃 동질성, 이웃과의 교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참여 수준에서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세하였다. 연령과 가구소득은 사회통합의 변인들과 정(+)의 관계에 있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영역성, 이웃 동질성, 이웃과의 교제, 이웃에의 참여 수준도 높았다.

V. 논의와 결론

본문의 분석 결과들은 주거 환경의 요새화가 범죄의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범죄의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을 모색하게 하는데, 요새화된 주거 환경은 이에 대한 하나의 선택지로 작용하는 것 같다.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로 상징되는 ‘출입 검열’(gatedness) 관행이 현대사회의 증가된 위험과 신뢰 붕괴에 따른 불안감에 대한 심층적 감정의 반영이라는 뒤피어스와 쏘른스(2008: 154)의 논의는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도 어느 정도 적합하다. 그들은 보안지향형 주거 공동체에서 이방인의 진입을 제한하는 ‘출입문’(gates)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요새화 과정들도 출입 검열의 사유 체계가 반영된 현대의 일상적 삶의 한 조각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표상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이 강화된 주택 단지, 집에 대한 보안의 강화, 활성화된 전자 감시의 사용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분석 결과들은 주거 환경의 요새화가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기 어렵게 한다. 특히 가구 단위에서의 보안의 요새화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두려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앞의 분석 결과는 의미심장하다.

개별적 요새화는 거주 지역에 대한 영역성, 이웃과의 동질성, 집합효율성의 교제와 참여 수준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웃에 대한 주인의식이 강할수록, 이웃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동류의식이 강할수록 인지적 혹은 평가적 수준의 두려움이 감소된다는 결과는 주거 환경의 요새화가 이웃과의 유대 강화나 사회통합과 연결되지 않는 한 범죄의 두려움을 낮추는 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나 사회통합을 통한 집합주의적 보안 추구는 시장주의적 보안 추구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입 검열의 사유 체계’를 기층에서 지탱하는 것은 예전보다 삶이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 생각, 일상적 안전에 대한 증가하는 근심과 그로 인한 행동상의 변화 등이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자각의 증가가 우리들의 태도와 행동을 다시금 틀 지운다. 이러한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일반적 반응의 일부로서, 출입 검열은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보다 큰 확실성과 통제의 느낌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되는 해법이 되었다. 출입 제한의 실천 기제들은 잠재적 위험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교한 감시 기술들을 사용한다.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과 전통적인 사회통제 수단들에 대한 신뢰 감소는 가족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임이 개인들에게 이동되었음을 의미한다. 범죄 예방 기획들은 개인들이 자신의 신체와 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 특히 잠금장치와 모니터 감시, 경보장치의 설치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동성이 증가하고 이웃의 다양성이 확대됨에 따라 반드시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될 잠재적 위험인물들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도 커져만 간다. 이에 대한 하나의 해법은 거주지가 ‘우리과 같은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보증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건축업자들

이 보안이 중시되는 주거 공동체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고 있는 판매 요점 중의 하나이다(Winstanley et al., 2003).

이처럼 증가된 두려움과 쇠퇴하는 신뢰 수준은 결과적으로 뉘피어스와 쏘른스(2008)가 ‘출입 검열의 사유 체계’라고 부르는 것의 점차적 확산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그들은 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에는 역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Dupuis and Thorns, 2008: 155). 그것은 요새화의 수준이 강화될수록 걱정 수준도 증가하고, 따라서 이를 수반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보다 많은 장치들을 요구할 것이라는 역설이다. 채택된 관행들은 종종 자기-패배적이어서 근심걱정의 수준을 감소시키기보다 서서히 끌어올리는 쪽으로 유도한다. 또한 그것은 공공 책임보다 개인 책임, ‘미리 예방하는 개인’에 대한 강조를 유도한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은 요새화 전략들이 채택되지 않았거나 작동에 실패했을 때의 비난은 약탈자나 실패한 공공정책과 제도가 아니라 일상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강화한다.

본문의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들은 범죄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디자인에 의한 보안, 혹은 시장 의존적인 요새화 전략 이외에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한다. 케나(2010)의 연구는 물리적인 장벽 외에 이웃의 현안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적 자치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시켜준다. 그의 연구는 보안과 보호는 물리적인 보안과 사적 자치의 결합을 통해 달성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테일러와 브라우어(Taylor and Brower, 1985) 또한 어떤 지역의 ‘영토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강력한 방벽을 세우는 일은 많은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전자 장치나 고용 경비원에게 떠넘김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유대를 침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봤듯이, 초기 연구들은 폐쇄적인 보안지향형 주택 단지에서의 공동체 의식과 공동 책임이 사실상 그리 크지 않으며 실질적인 안전도 증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논의와 분석 결과들은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주거 환경의 요새화가 이웃과의 유대와 소속감, 책임의식,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확실한 결과들을 유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혹은 그와 병행하여 이웃과 지역의 문제를 집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은경 외. 2009. 『2008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V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대검찰청. 2010. 『범죄분석(2009)』.
- Atlas, R. and LeBlanc, W. G. 1994. "The impact on crime of street closures and barricades: a Florida case study." *Security Journal*, 5: 140-145.
- Blakely, E. J. and Snyder, M. G. 1995. *Fortress America: gated and walled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for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USA.
- Blakely, E. J., Snyder, M. G. 1997. *Gated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 and Lincoln Institute for Land Policy.
- Blandy, S., Dixon, J., Dupuis, A., and Parsons, D. 2006. "Theorising power relationships in multi-owned residential developments: unpacking the bundle of rights." *Urban Studies* 43(13): 2365-2383.
- Brown, B. B. and Altman, I. 1981. "Territoriality and residential crime," in P. J. Brantingham and P. L. Brantingham (eds.). *Environmental Criminology*, pp.56-76. Beverly Hills, CA: Sage.
- Bursik, R. J., Jr. and Grasmick, H. G.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 Covington, J. and Taylor, R. B. 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Implications of between- and within-neighborhood sources for current models." *Sociological Quarterly*, 32: 231-249.
- Davis, Mike. 1990. *City of Quartz: Encavating the Future in Los Angeles*. London: Verso.
- Dupuis, Ann and Thorns, David. 2008. "Gated Communities as Exemplars of 'Forting Up' Practices in a Risk Society." *Urban Policy and Research*

26(2): 145-157.

Fainstein, Susan. 1994. *City Builders*. Oxford: Blackwell.

Farrall, S., Jackson, J. and Gray, E. 2009. *Social Order and the Fear of Crime in Contemporary Ti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larendon Studies in Criminology.

Ferraro, K. F. and LaGrange, R. 1987. "The Measurement of Fear of Crime." *Sociological Inquiry*, 57: 70-101.

Ferraro, K. F. and LaGrange, R. L. 1992. "Are older people most afraid of crime: Reconsidering age and differences in fear of victimization." *Journal of Gerontology*, 47: S233-S244.

Fisher, B. S. and Sloan, J. J., III. 2003. "Unraveling the fear of victimization among college women: Is the 'shadow of sexual assault hypothesis' supported?" *Justice Quarterly*, 20: 633-659.

Flusty, S. 1997. "Building Paranoia," in N. Ellin (ed.). *Architecture of Fear*, pp.47-60.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Foldvary, F. 1994. *Public Goods and Private Communities: The Market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Aldershot and Brookfield, VT: Edward Elgar.

Fowler, F. K. Jr. and Mangione, T. W. 1986. "A three-pronged effort to reduce crime and fear of crime: The Hartford experiment," in D. P. Rosenbaum (ed.). *Community crime prevention: Does it work?* pp.87-108. Newbury Park, CA: Sage.

Garland, D. 2001. *The Culture of Control: Crime and Social Order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iroir, G. 2006. "The purple jade villas (Beijing): a golden ghetto in red China." in G. Glasze, C. Webster, and K. Frantz (eds.). *Private Cities: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pp.142-152. Abingdon: Routledge.

Glasze, G. 2006. "The spread of private guarded neighborhoods in Lebanon and the significance of a historically and geographically specific governmen-

- tality,” in G. Glasze, C. Webster, and K. Frantz (eds.). *Private Cities: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pp.127-141. Abingdon: Routledge.
- Goobler, A. 2002. “Outside the walls: urban gated communities and their regulation within the British planning system.” *European Planning Studies*, 10(3): 321-335.
- Hughes, P. P., Marshall, D., and Sherrill, C. 2003.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fear and confidence of university women relating to crimes and dangerous situation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 33-49.
- Judd, D. 1995. “The Rise of New Walled Cities,” in H. Ligget and D.C. Perry (eds.). *Spatial Practices* pp.144-165.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Jügens, U. and Landman, K. 2006. “Gated communities in South Africa.” in G. Glasze, C. Webster, and K. Frantz (eds.). *Private Cities: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pp.109-126. Abingdon: Routledge.
- Kenna, Therese. 2010. “Fortress Australia? (In)security and private governance in a gated residential estate.” *Australian Geographer*, 41(4): 431-446.
- Kubrin, Charis E., and Ronald Weitzer. 2003. “New directions i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 374-402.
- Lab, Steven P. 2010. *Crime Prevention: Approaches, Practices and evaluations* (7th edition). (이순래 외 역. 2011. 『범죄예방론』. 도서출판 그린).
- Lange, R. F. and Danielson, K. A. 1997. “Gaged communities in America: Walling out the world?” *Housing Policy Debate*, 8(4): 867-899.
- Le Goix, R. 2006. “Gated communities as predators of public resources,” in G. Glasze, C. Webster, and K. Frantz (eds.). *Private Cities: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pp.76-91. Abingdon: Routledge.
- Low, Setha M. 2001. “The Edge and the Center: Gated Communities and the Discourse of Urban Fear.” *American Anthropologist* 103(1): 45-58.
- Low, S. 2003. *Behind the Gates: Life Secur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in*

Fortress America. New York: Routledge

McKenzie, E. 2006. "The dynamics of privatopia: private residential governance in the USA," in G. Glasze, C. Webster, and K. Frantz (eds.). *Private Cities: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pp.9-30. Abingdon: Routledge.

Newman, Oscar. 1972. *Defensible Space*. New York: Macmillan.

Pantazis, C. 2000. "Fear of crime, vulnerability and poverty, evidence from the British Crime Survey."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0: 414-436.

Rountree, P. W. and Land, K. C. 1996. "Burglary victimization, perceptions of crime risk, and routine activities: A multilevel analysis across Seattle neighborhoods and census tracts." *Th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 147-180.

Sampson, R. J. and Raudenbush, S. W. 1999. "Systematic Social Observation of Public Spaces: A New Look at Disorder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 603-51.

Sampson, R. J., Raudenbush, S. W., and Earls, F.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24.

Skogan, W. G. and Maxfield, M. G. 1981. *Coping with crime*. Beverly Hills, CA: Sage.

Taylor, R. B. and Brower, S. 1985. "Home and near-home territories," in I. Altman and C. Werner (eds.). *Home environments*, pp. 183-212. New York: Plenum.

Webster, C. 2003.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ACSP/AESOP Planning Congress, Leuven, Belgium, 8-11 July. The global emergence of private planning and governance.

Webster, C., Glasze, G., and Frantz, K. 2002. "The global spread of gated communiti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Planning and Design*, 29: 315-320.

- Webster, C., Wu, F., and Zhao, Y. 2006. "China's modern gated cities," in G. Glasze, C. Webster, and K. Frantz (eds.). *Private Cities: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pp.153-169. Abingdon: Routledge.
- Winstanley, A., Thorns, D., and Perkins, H. 2003. "Nostalgia, community and new housing developments: a critique of new urbanism incorporating a New Zealand perspective." *Urban Policy and Research*, 21(2): 175-189.
- Wison-Doenges, Georjeanna. 2000. "An Exploration of Sense of Community and Fear of Crime in Gated Commun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2(5): 597-611.

〈부록〉 주요 변인의 측정 문항과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의 정도

개념	측정변인		측정문항	척도	신뢰도 계수
인지적 두려움	일반적 두려움		•밤에 혼자 집에 있기가 두렵다. •밤에 혼자서 골목길을 다니기가 두렵다. •낯선 사람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두렵다.	5점 척도	.879
감정적 두려움	재산피해 두려움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 렵다. •누군가 허락도 없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5점 척도	.889
	폭력피해 두려움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누군가 나를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 다.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 힐까 봐 두렵다.	5점 척도	.858
주거 환경의 요새화	개별적 요새화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다.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쇠창살)이 있다.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밖을 내다보는 구멍이 있다.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예/아니오 2점 척도	.537
	집합적 요새화		•집 주위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출입카드를 사용한다. •경비가 있다.	예/아니오 2점 척도	.710
사회통합	영역성		•나는 대략 어디까지가 우리 동네인지 알 수 있다. •나는 대체로 누가 동네 아이들인지 알 수 있다.	5점 척도	.652
	이웃 동질성		•이웃들은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웃들은 우리 집과 생활정도나 교육수준이 비슷하다.	5점 척도	.735
	집합 효율성	교제	•가벼운 목례나 눈웃음 정도의 인사를 나누는 사람 •“안녕하세요” 정도의 가벼운 말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 •약수 등 신체접촉을 하며 반갑게 안부를 묻는 사람 •30초 이상 서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인사하는 사람	5점 척도	.919
		참여	•동네 아이들이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 게라도 도와줄 것이다. •여학생이 불량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떤 방식이라도 도와줄 것이다. •이웃들끼리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를 조직한다면 방범대원으로 지원할 것이다.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5점 척도	.789

Fear of Crime and 'Forting Up' of the Residential Community

Kim, Seong-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tifying residential environments, the neighborhood's social integration, and the dwellers' fear of crime, using data from Korean Crime Victim Survey of 2008. In this paper, I explore firstly whether and how much fortifying up residential environments makes a effect to reduce the fear of crime. Secondly, I analyse whether the fortifying up strategies on residential quarters affects to intensify the neighborhood's social integration.

Previous research has shown relationships between the environment and fear, and the 'gatedness practices' and fear. The results of the current research find support for linkages between fear and particular forms of the physical environments, filled with the market-provided security such as CCTV, access control systems, and security guards, etc. Of particular interest, the findings also show a direct effect between fear of crime and the level of fortifying residential communities. In contrast to the finding that gated community is associated with reduced fear, in this study such relationship was not clear. Most notably, in the final analysis the data shows that intensifying security with market will be limited to reduce fear of crime, if not supported through the territoriality, the commonality of the neighbors, the social cohesions among the residents, and the importance placed by the residents on the ability to protect the nature of their neighborhood and to themselves from any 'unwanted' activities or groups. In addition, it is argued that collective security pursuing, based on informal social control and collective efficacy, will be a good alternative for the market-

*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Kyungnam University, Ph D. in Sociology

dependance on security.

- ❖ Key Words: fear of crime, gated communities, fortifying residential environments, social integration, collective security pursuing, market-provision on security